

관계절 명사구의 총칭적 의미 분석¹

이 성 범

1. 서 론

이 논문의 목적은 관계구문의 명사구가 갖는 양화 의미 가운데 주로 총칭적(generic) 의미를 특칭적(existential) 의미와 대비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의 관계절 중에 여기에서는 양화사가 붙지 않은 이른바 원형 명사(bare noun)의 형태로 존재하는 중심명사(head noun)를 갖고 있는 관계절만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관계절 명사구가 총칭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 보고, 이런 경우 Cooper (1983)의 이론적 모델을 따른 이영현 (1984)의 분석 방법의 대안으로서 Montague의 PTQ 모델 안에서 유형인상(type-lifting)의 방법을 적용하여 의의있는 분석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명사구 표현의 양화 의미는 격표지가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격표지 이외에도 명사구의 서술어나 문맥 등에 의해 명사구의 양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총칭적 해석과 특칭적 해석 두 가지가 가능한 관계절의 경우 각각의 의미해석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계절의 중의성

Cooper (1983)의 storage 개념을 받아들여 한국어 명사구의 양화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 이영현 (1984: 67)은 다음과 같은 두 명사구 표현을 통사적, 의미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 (1) a. 부지런한 학생
- b. 부지런한 모든 학생

우선 (1a)의 경우 중심명사인 ‘학생’은 자기 바로 앞에 명시적인 양화 표현이 없는 원형명사인데, 이런 원형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관계절이 아닌 단순한 형용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1b)에서 ‘부지런한’은 (1a)에서와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뒤에 양화사가 따라오므로 관계

¹ 이 논문은 1994학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절이라는 것이다. 원래의 관계절에서 관계사 생략 및 서술어 이동과 같은 변형과정을 거쳐 표면으로 나오다 보니 (1a)의 형용사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고 본다. 의미적으로도 명사구 (1a)의 외연은 형용사 ‘부지런한’의 속성을 갖고 있는 개체의 집합과 명사 ‘학생’의 집합 사이의 교집합으로 표시하는 반면, (1b)처럼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의 외연은 그 명사를 관계절의 부분집합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명사구의 의미적인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 통사적으로 덜 직관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즉 (1a)처럼 양화사가 없는 원형명사구의 경우가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항상 단순한 형용사로 보아야 한다고 못박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2)에서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가 통사적으로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최종 의미해석 단계에서는 형용사가 되게끔 하는 문법적 유도과정이 필요해진다.

(2) 내가 어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와 마주친 학생

즉 (2)에서 ‘내가 어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와 마주친’이란 표현은 통사적으로야 어찌되었든 원형명사 앞에 나왔으므로 관계절이 아니라 형용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형용사로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하더라도 불필요할 정도로 복잡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책’과 같은 명사구에서는 원형명사 ‘책’ 앞의 수식어 ‘새’를 관계절에서 서술어의 위치에 있다가 표면상으로 수식어의 위치로 옮겨가는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하는데, (1)의 ‘부지런한’과는 달리 ‘새’는 서술어의 자리에 원래부터 나타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²

통사적인 문제 외에 더 중요한 문제점은 원형명사가 있는 관계절 구문이 의미상으로 중의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본 이영현 (1984)의 양화 의미 분석을 적용하면 다음 (3)과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은 (3a)에서는 단순한 형용사이지만 (3b)에서는 관계절이 된다.

- (3) a.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b.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장난감

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3a)의 외연은 (4a)와 같고, (3b)의 외연은 (4b)와 같게 된다.³

²혹시 ‘새 책’에서 ‘새’는 서술적으로는 쓰일 수 없으니까 원래는 ‘새롭다’라는 서술어에서 변형되어 ‘새로운’을 거쳐 ‘새’로 도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의미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³E는 Cooper (1983)에서 말하는 개체들(entity)의 집합으로 화역을 이루며, X는 이런 집합에 대한 변항(set variable)을 말한다.

- (4) a. $\parallel \text{장난감} \parallel \cap \{a \in E \mid \text{어린이들이 } a \text{를 좋아한다}\}$
 b. $\{X \subseteq E \mid \{x \mid \{x \mid x \text{는 장난감이다}\} \subseteq \{x \mid \text{어린이들이 } x \text{를 좋아한다}\}\} \subseteq X$

그런데 문제점은 (3a)는 반드시 (4a)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중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3a)가 들어간 문장을 비교해 보면

- (5) a.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b. 철수가 사온 장난감은 어느 하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아니다.

예문 (5)의 괄호로 둘러 싸인 부분은 (5a)에서는 총칭적 의미로, (5b)에서는 특칭적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더 살펴 보자.

- (6) a. 철수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본고사를 이틀씩이나 본다.
 b. 남들이 다 가는 대학교를 너만 왜 못 가니?

(6a)에서 철수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화역에서 특칭적으로 정해진 학교인 반면 (6b)에서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학교나 화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남들이 다 가는 대학교’에서처럼 관계절 원형명사구가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는 유개념으로서 총칭적 의미로 쓰일 경우 이의 외연은 단순한 개체의 집합(a set of individuals)이 아니라, 개체로 구성된 사물의 종류, 즉 Carlson (1977)에서의 ‘kind’, 또는 Ojeda (1991)에서의 ‘genus’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관계절에 초점을 두고 다음 (7)의 예문들을 보자.

- (7) a. 이 회사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든다.
 b.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대부분 밀수품이라고 한다.

화자가 (7a)의 문장을 발화했을 때, 화자는 모든 장난감 중에서 일부 정해진 부분에 대한 어린이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특정한 장난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라면 장난감을 좋아하게 마련인데, 것처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바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뜻으로 말할 수도 있다. 이때 전자의 경우 관계절의 선행사인 목적어 명사구, 즉 ‘장난감’은 특칭적인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총칭적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영현 (1984)에서는 중의

적 원형명사구의 의미해석은 명사구에 붙는 격표지의 차이에 의존하는데, (7)의 예문들은 관계절 명사구의 격표지가 (7a)에서는 ‘-을’, (7b)에서는 ‘-가’로 각각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중의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관계문과 격표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곧 다시 살펴 보겠다.

그런데 얼핏보면 (7a)의 두 가지 의미는 양화논리의 언어로 각각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어 보인다.

(8) $\forall x[\text{장난감}(x) \rightarrow \text{좋아하다}(\text{어린이들}, x) \ \& \ \text{만들다}(\text{이 회사}, x)]$

(9) $\exists x[\text{장난감}(x) \ \& \ \text{좋아하다}(\text{어린이들}, x) \ \& \ \text{만들다}(\text{이 회사}, x)]$

그러나 (7a)는 (8)의 전칭적 의미가 아니라 총칭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화논리에서 논리적 형식으로 표시된 (8)의 해석은 (9)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함의한다고 본다. 다른 유사한 예를 들면

(10) John admires every logician ($\forall x[\text{logician}(x) \rightarrow \text{admire}(\text{John}, x)]$)

(11) John admires some logicians ($\exists x[\text{logician}(x) \ \& \ \text{admire}(\text{John}, x)]$)

(10)이 참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11)은 참이 되므로, (10)은 (11)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a)의 문장은 직관적으로 볼 때 (10)-(11)의 경우와 같은 함의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7a)의 의미 중 특칭적 의미는 명백하므로, 함의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7a)가 특칭적 의미는 있으나 전칭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Enc (1991: 11)의 주장이 맞다면 모든 양화사는 특정적(specific) 해석을 갖게 되는데 만약 (7a)가 전칭 양화사로 나타내야 한다면 당연히 특정적 의미(specific reading)만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7a)는 총칭적 의미로 쓰일 경우 비특정적 의미도 있으므로 (7a)의 의미를 (8)과 (9)로만 나타낼 수 없다.

Dowty (1979)에서는 한 원형명사가 특칭적 해석과 총칭적 해석으로 동시에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 있을지에 대해 그 예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한국어의 경우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원형명사구는 원래 원형명사구가 갖는 총칭적 해석 이외에 특칭적 해석까지도 가능한 예가 된다. 그렇다면 이런 중의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앞서 관계절의 양화의미와 격표지의 문제를 다음 절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의미 해석의 문제를 다루겠다.

3. 양화 의미와 격표지

명사구 표현의 양화 의미와 격(Case)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많은 언어에서 관찰되어 왔다. 예를 들어 Enç (1991)의 연구를 보면 터키어에서 대격표지의 유무가 그 명사구의 특정성(specificity)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de Hoop (1989)에서는 핀란드어에서 명사구의 한정성(definiteness)이 대격/부분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한국어에서도 이영현 (1984), 이정민 (1989) 등의 연구에 의하면, 논리적 양화사가 붙지 않은 명사구의 특칭적 의미(existential meaning)는 조사 '-이/-가'와 연결되고, 전칭적 의미(universal meaning)는 '-은/-는'과 연결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영현 (1984)에 따르면,

- (12) a. 개가 짖는다.
b. 개는 짖는다.

(12a)와 (12b)에서 양화적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격표지의 차이 때문인데 (12a)에서 '-가'는 전칭 의미를 갖게 해주는 전칭양화함수표현이고, (12b)에서 '-는'은 특칭 의미를 갖게 해주는 특칭양화함수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2)의 예문과 다음 (13)의 예문을 비교하면 (13)의 예문들 사이에서는 (12)에서와 같은 전칭/특칭의 의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 (13) a. 술이 철수를 망쳤다.
b. 술은 철수를 망쳤다.

(13)에서의 의미 차이는 양화적 차이라기보다는 초점이나 대조의 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따라서 격표지의 차이가 반드시 양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13)의 예는 격표지가 달라도 양화적 의미는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앞 절에서 본 (7a)의 예문은 역으로 격표지가 같아도 양화 의미에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6a)와 (7b)의 예문에서는 격표지와 양화 의미에 대한 이영현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예문을 다시 보면

- (6) a. 철수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본고사를 이틀씩이나 본다.
(7) b.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대부분 밀수품이라고 한다.

(6a)에서는 전칭양화함수표현이라는 '-는'이 중심명사에 붙었지만, 전칭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특칭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7b)에서는 특칭양화함수표현이라는 '-가'가 붙었지만 특칭이라기 보다는 총칭적인 뜻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⁴ 뿐만 아니라 양화함수표현이라고 간주되는 격표지는 주어의 자리에서만 유효하고 앞의 예문 (7a)에서도 보았듯이 목적어와 같은 기타의 위치에서는 변별력이 없는 바, 단순히 격표지에 의해 양화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이른바 함수적 표현에 대한 의미해석이 통사적 정보에 구속되는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이영현 (1984: 52)은 또한 Carlson (1977)에서와는 달리, “원형명사구의 의미는 동사구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보다 원형명사구 자체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다음 예문 (14)–(16)을 보면 원형명사구를 서술하는 동사구의 역할이 양화의미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철수가 좋아하는 술이 결국 그를 망치고 말았다.

(15) 철수가 좋아하는 술이 요즈음 잘 팔린다.

(16) 철수가 좋아하는 술이 요즈음 가장 잘 팔린다.

우선 문장 (14)를 발화할 때 화자는 어떤 특정한 술을 말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14)의 주어 명사구는 반드시 특칭적이라고 볼 수 없다. 대신 이 명사구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는 일반적 대상으로서의 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므로 총칭적으로 보는 쪽이 더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14)에서 (15), (16)의 문장으로 옮겨갈수록 총칭성보다 특칭성이 더 강해진다. (14)–(16)에서의 차이점은 단지 술어 부분의 차이뿐인데 이들의 의미유형에 따라 앞선 명사구의 양화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사구의 양화의미를 그 명사구를 서술하는 동사의 특성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의 격표지에 의해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특정성(specificity)의 관점에서 (14)의 명사구가 총칭적으로 해석될 때, 화자는 머릿속에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비특정적([non-specific]) 명사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점은 이정민 (1989: 482)의 결론, 즉 -가(또는 -이)가 붙은 명사는 [+specific]이란 자질을 부여받아 existential force를 얻게 된다는 것과 상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격표지 자체가 함수표현이라기 보다는 명사구의 유형에 따라 그 양화의미도 달라지고, 격표지의 종류 또는 격표지의 유무가 명사구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e Hoop (1989)은 명사구

⁴ (7b)의 문장을 다음과 비교해 보라.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는 빛이 깨끗하게 굴절하는 다이아몬드이다.

위의 예문에서 ‘다이아몬드’는 ‘-는’이 붙었지만 전칭이 아니라 특칭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격표지의 함수적 특성은 적어도 이영현 (1984)에서 주장한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의 한정성(definiteness)과 그 명사구의 격(Case)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내재적인 격(inherent Case)이 아닌 구조적인 격(structural Case)을 할당받는 명사구만이 보편양화사(generalized quantifier)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Enç (1991)의 터키어 예에서 대격 격표지가 있는 명사구는 특정적으로 해석되는데 비해 격표지가 없는 명사구는 비특정적 해석만을 갖는 것은 아마도 격표지의 유무가 격의 내재성/구조성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한국어의 예문을 보자.

- (17) a. 돈을 먹은 사람
b. 돈 먹은 사람

(17a)에서는 대격을 나타내는 격표지 ‘-을’이 있는 반면, (17b)에서는 탈락하고 원래 목적어와 동사의 어휘적 통합(lexical incorporation)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17a)의 문장은 중의성이 있는 반면, (17b)는 중의성이 없고 대신 비유적 의미로만 쓰이고 있다. 즉 마술사같은 사람이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묘기를 보이려고 지폐를 삼켰다면 (17a)의 말은 가능하지만, (17b)는 쓸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런 명사구에서의 격표지는 의미적으로 그 명사구가 특정하다는 것(being specific)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격표지가 있다는 것은 그 명사구가 구조적인 격을 할당받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격표지가 탈락하게 되면 이는 내재적 격만을 받게 되어 그 담화 상황에서 특정한 명사구가 아닌 일반적인 명사구를 나타내게 되어 비유적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⁵ 즉 이럴 경우 명사구의 유형(type)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17a)에서 목적어 ‘돈’은 $\langle e, t \rangle$, $t \rangle$ type의 명사구로 [+specific]인데 비해, (17b)에서 ‘돈’은 $\langle e, t \rangle$ type의 명사구로서 [-specific]이다. 이와 유사한 예를 보면

- (18) a. 철수는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았다.
b. 철수는 서울역에서 구두 닦았다.

(18a)는 (18b)보다 중의성이 강한데, 즉 하나는 ‘철수가 과거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비반복적으로 구두를 닦은’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수가 과거 어느 시구간에서 반복적 또는 직업적으로 구두를 닦은’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18b)에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 즉 철수의 과거 직업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럴 때의 명사구

⁵ 격표지가 탈락하고 어휘통합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비유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너 밥 먹었니?’에서는 비유적 의미는 없다. 이 경우 격조사의 단순한 탈락인지 아니면 어휘통합까지 일어난 것인지는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는 lower-order type으로서 내재적인 격만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

마지막으로 명사구의 양화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단 명사구의 격이나 서술어의 유형뿐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 (19) a. 철수는 몸에 해로운 술을 매일 먹는다.
b. 철수는 몸에 해로운 약을 매일 먹는다.

(19)의 경우는 중심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양화의미가 결정된다. 즉 대부분 사람이 술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약의 경우는 반드시 다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므로 (19)에 제시된 문장에서의 명사구의 양화의미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19a)는 총칭적으로, (19b)는 특칭적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는 이영현 (1984)의 주장과는 달리 Cooper (1983)식의 단순한 형식의미론적 분석의 범위를 뛰어 넘는 것이 된다.

4. 관계절 명사구의 의미유형

Partee (1987)는 Montague가 PTQ에서 제시한 범주체계를 수정하여, 명사구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유형 e는 PTQ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체(또는 실재물; entity)를 나타내고, 2) PTQ에서 단순히 일반명사(common noun)의 유형으로 설정했던 <e, t> 유형에 술어적 명사구(predicative NPs)가 포함되며, 3) PTQ에서 명사구(term phrase)라고 부른 <<e, t>, t> 유형의 명사구에는 양화적 명사구(quantificational NPs)가 속한다고 보고 있다.⁷ 이러한 명사구의 세분화는 여러 가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명사구의 쓰임이 언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영어, 불어, 네덜란드어 문장을 보면 be동사의 서술어 위치에 오는 명사구의 유형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들 문장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각 문장에 있는 서술어 명사구의 유형이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 Partee (1987)는 모든 명사구

⁶ 그런데 대격 표지의 유무가 특정성을 바로 결정짓는 터키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격표지의 유무와 특정성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시를 쓰는 것은 어렵다'라는 문장에서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격표지가 있지만 화자가 마음 속에 갖고 있는 특정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specific]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격표지가 있음에도 비특정적 해석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⁷ 여기서는 편의상 intension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 궁극적으로 $\langle e, t \rangle, t \rangle$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유형변경(type-shifting)이라는 연산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 (20) a. John is *teacher/a teacher.
 b. Jean est professeur/*un professeur.
 c. Jan is leraar/een leraar.

한국어에서도 서술어의 명사구는 일반명사의 형태를 취하지만, 의미해석을 위해서는 어느 단계에서는 명사구, 즉 $\langle e, t \rangle, t \rangle$ type으로 의미 유형이 바뀌어야 한다.

- (21) 철수는 선생이다/*한 선생이다.

그런데 이런 유형변경이 우리가 이 글에서 보고 있는 총칭적 관계절의 해석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모형의미론적 방식으로 관계문을 다룬 Partee, et al. (1990: 357)의 분석을 보자.

- (22) a. CN \rightarrow CN REL
 b. $\lambda x.[CN'(x) \& REL'(x)]$ (단 x 는 e type의 변수)

(22a)의 통사규칙에 의하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일반명사(CN)로서 관계절(REL)과 결합하여 또다른 일반명사를 만들어낸다. 이에 대한 의미해석 규칙은 $\langle e, t \rangle$ type에 대한 λ -표현으로 (22b)처럼 나타난다. 예를 들어 (23a)의 의미는 (23b)처럼 나타낼 수 있다.

- (23) a. woman who hates John
 b. $\lambda x.[woman'(x) \& hate'(x, j)]$

그런데 Carlson (1977), Dowty (1979) 등이 이미 지적했듯이 총칭적 원형 명사구는 의미적으로 PTQ에서 말하는 범주 CN이 아니라 범주 T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명사구를 포함한 관계구문은 앞서 본 (22)의 통사, 의미 규칙으로는 도출할 수 없고 (24)에서처럼 통사적, 의미적으로 별도의 규칙을 필요로 한다.⁸

- (24) a. NP \rightarrow REL NP
 b. $\lambda P[P\{NP\} \& REL']$ (단 P 는 $\langle e, t \rangle$ type의 변수)

이 결과는 Cooper (1983)에서의 비제한적인(non-restrictive) 관계절을 유도하는 과정과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으로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총칭적 해

⁸ Chierchia and Turner (1988)도 이런 규칙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석의 관계문은 비제한적 관계문과 의미적으로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4)의 규칙을 우리의 예문에 적용하되 먼저 총칭적 의미의 관계문일 경우부터 보자.

(25)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Rightarrow

$\lambda P[P\{\text{장난감}\} \ \& \ \text{좋아하다}'(\text{어린아이들}, \text{장난감})]$

(25)에서 중심명사 '장난감'은 원래 e type의 명사이었지만, 총칭적 의미를 지니게 되면 마치 고유명사처럼 $\langle\langle e, t \rangle, t \rangle$ type의 명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유형인상(type-lifting 또는 type-shift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26) 명사구 유형인상 (Partee and Rooth 1983)

If $\alpha \in P_T$ and α translates as $\alpha' \in ME_e$, then α also translates as α'' in $ME_{\langle\langle e, t \rangle, t \rangle}$, where $\alpha'' = \lambda P[P(\alpha')]$

(26)은 보다 간단히 말해서 $f: \langle e \rangle \rightarrow \langle\langle e, t \rangle, t \rangle: f(\alpha) = \lambda P[P(\alpha')]$ 로 나타낼 수 있다. 유형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들에서 언급이 되어 왔다. 예를 들면 coordination의 문제와 관련해서 Steedman (1985), Dowty (1988)등이 명사표현의 type을 higher-order type으로 바꿔주는 기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Hoeksema (1988), Partee (1987) 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형인상이 적용되면 명사표현의 외연이 개별체의 집합(a set of individuals)에서 개별체의 집합의 집합(a family of sets of individuals)으로 확장된다.⁹ (25)의 총칭적 명사구가 주어로 쓰인 문장을 보면

(27)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행진한다 \Rightarrow

$\lambda P[P\{\text{장난감}\} \ \& \ \text{좋아하다}'(\text{어린아이들}, \text{장난감})](\text{'행진하다'})$
 $\Rightarrow \text{'행진하다}'(\text{장난감}) \ \& \ \text{좋아하다}'(\text{어린아이들}, \text{장난감})$

즉 의미상으로 총칭적 의미를 띠는 경우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행진한다'라는 문장은 '장난감이 행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한다'라는 두 문장의 접속과 같은 해석을 얻는다. 이것은 영어의 경우 비한정적인 관계절의 의미해석과 동일한 것이다. (27)에서 주어의 중심명사 '장난감'은 어떤 양화사의 영역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다면 같은 원형명사구 예문의 특칭적 의미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를 알아 보기 전에 양화사

⁹앞에서 entity를 '개체'라고 한 바 있으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individual은 '개별체'라고 번역한다.

를 명시적으로 명사 앞에 갖고 있는 경우를 먼저 살펴 보자. 관계문의 통사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다음 (28)의 구조가 (29)보다 통사적으로 타당한 구조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도 (28)의 구조를 받아들여 다음 전칭양화사가 있는 문장의 의미 해석을 보기로 하자.¹⁰

(30)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장난감

전칭양화사 ‘모든’이나 존재양화사 ‘어떤’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관계절은 PTQ에 제시된 규칙들을 이용하여 속범주적으로(syncategorematically) 유도해 낼 수 있다.¹¹ 다만 여기서 한 가지 PTQ와 다른 점은 양화사를 Bach (1979: 516)가 제안한 RWRAP으로 처리하는 것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31) Determiner-Noun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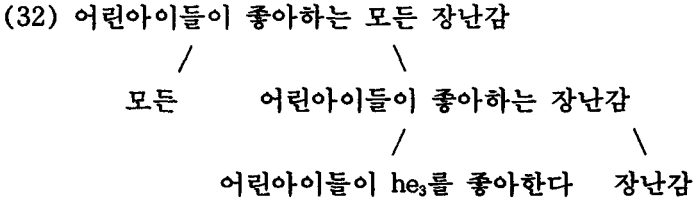
S2: If $\delta \in P_{T/CN}$ and $\zeta \in P_{CN}$, then $F_2(\delta, \zeta) \in P_T$, where $F_2(\delta, \zeta) = RWRAP(\zeta, \delta)$, and if a has the form $[_{XP} X W]$, then $RWRAP(a, b) = X b W$

위의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의 분석 수행도와 번역 과정에서 알 수

¹⁰Hudson (1989)에 의하면 every, the, most 등과 같은 Milsark (1974)의 “quantificational determiner”는 Abney (1987)가 말하는 DP(Determiner Phrase)의 SPEC 자리에 와야 하고, a, some, two 등과 같은 “cardinal quantifier”는 NP의 SPEC 자리에 오지만 양화적으로 쓰일 때에는 DP의 SPEC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determiner가 양화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그 구 안에서 가장 넓은 scope를 취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주장 역시 간접적이거나 (28)을 지지하는 것이 된다.

¹¹이영현 (1984)에서는 이같은 속범주적 적용이 합성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PTQ의 모델 안에서도 관계절의 원형명사구가 갖고 있는 중의성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속범주적 적용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체계 안에서도 집합이론적인 분석 역시 가능하다.

있다.



위 수행도에서 ‘모든’은 원래 (28)의 구조처럼 관계절 앞에 위치해 있으나 (31)의 적용을 받아 관계절과 중심명사 사이로 위치하게 된다. ‘모든’의 번역이 $\lambda P\lambda Q\forall x[P\{x\} \rightarrow Q\{x\}]$ 라고 하고, PTQ의 관계절 해석 규칙을 따르면, (30)의 의미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된다.

- (33) 1. 어린아이들이 x_3 를 좋아하다 \rightarrow 좋아하다’ (어린아이들, x_3)
 2.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rightarrow x_3$ [장난감(x_3) & 좋아하다’ (어린 아이들, x_3)]
 3. 모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rightarrow \lambda P\lambda Q\forall x[P\{x\} \rightarrow Q\{x\}]$
 ($\hat{\lambda}x_3$ [장난감(x_3) & 좋아하다’ (어린아이들, x_3)]])
 4. $\lambda Q\forall x[[\text{장난감}(x) \ \& \ \text{좋아하다}'(\text{어린아이들}, x)] \rightarrow Q\{x\}]$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란 명사구가 갖고 있는 특칭적 의미는 (24)의 규칙을 적용받아 우선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 (34)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특칭적 의미) \Rightarrow
 λx [장난감’(x) & 좋아하다’ (어린아이들, x)]

여기서 주목할 것은 (34)의 중심명사 앞에 명시적 양화사가 없는데도 존재 양화사가 있는 것처럼 특칭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de Hoop (1989)이 언급한 바 있는 zero article과 같은 것의 존재를 인정하기로 한다. 즉 앞서 본 (20)의 예문 중 불어에서 be동사 다음의 술어가 관사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이나, 다음 한국어의 예문 (35)는 아마도 (35b)처럼 번역될 것인데 명사구가 아무런 지정사(determiner) 없이도 양화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성적 실체는 없으나 의미적 기능이 있는 지정사(‘ μ ’로 표시)를 가정해야 한다.¹²

- (35) a. 철수는 μ 사과를 먹었다.

¹²한 가지 다른 분석방법은 원래 some과 같은 지정사가 있었으나 유도과정 중에 생략된다고 보는 것이다. Bennett (1974)은 영어에서 이런 과정을 택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이영현 (1984)의 비판을 참조할 것.

b. $\exists x[\text{사과}(x) \ \& \ \text{먹다}(\text{철수}, x)]$

이 경우 보이지 않는 지정사 μ 는 (35b)에서 보듯이 보통 양화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 즉 술어적 특성, 의미영역으로서의 수식범위 확보, 변항을 묶을 수 있는 결속력, 중심명사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 등과 같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null operator로서 특칭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지정사를 앞에서 본 음성적 실체가 있는 지정사와 구별하기 위해 T//CN의 범주로 나타내면, 이 경우는 다음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36) Zero Determiner-Noun Rule:

S3: If $\delta \in P_{T//CN}$ and $\zeta \in P_{CN}$, then $F_3(\delta, \zeta) \in P_T$, where $F_3(\delta, \zeta) = RWRAP(\delta, \zeta)$, and if a has the form $[_{XP} X W]$, then $RWRAP(a, b) = X b W$

T3: If $\delta \in P_{T//CN}$ and $\zeta \in P_{CN}$, then $F_3(\delta, \zeta)$ translates into $\lambda P[\lambda Q \exists x[P\{x\} \ \& \ Q\{x\}]](\zeta')$.

S3 규칙을 (34)에 적용하면 통사적으로는 공허한 적용(vacuous application)처럼 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37)처럼 달라지게 된다.

(37)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특칭적 의미) \Rightarrow

$\lambda P[\lambda Q \exists x[P\{x\} \ \& \ Q\{x\}]] \lambda x[\text{장난감}'(x) \ \& \ \text{좋아하다}'(\text{어린아이들}, x)] \Rightarrow \lambda Q \exists x[[\text{장난감}'(x) \ \& \ \text{좋아하다}'(\text{어린아이들}, x)] \ \& \ Q\{x\}]$

(37)의 특칭적 명사구가 주어로 쓰인 문장의 의미해석을 보면 x라는 변항이 존재양화사에 의해 결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를 총칭적 해석의 (27)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38)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행진한다 (특칭적 의미) \Rightarrow

$\exists x[\text{장난감}'(x) \ \& \ \text{좋아하다}'(\text{어린아이들}, x) \ \& \ \text{행진하다}'(x)]$

영어에서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관계절이 고유명사를 선행사로 삼을 수 있다. 즉 영어의 제한적 관계절은 $\langle e, t \rangle$ type 명사하고만 결합하여 새로운 $\langle e, t \rangle$ type의 명사구를 만들어 내고, 비제한적 관계절은 $\langle \langle e, t \rangle, t \rangle$ type 명사와 결합하여 또다른 $\langle \langle e, t \rangle, t \rangle$ type 명사구를 내놓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관계절이 고유명사나 총칭적 명사가 선행사로 올 경우에는 $\langle \langle e, t \rangle, t \rangle$ type의 명사구를 내놓고, 그밖에 다른 명사가 선행사로 올 경우에는 $\langle e, t \rangle$ type의 명사구를 내놓기 때문이다. 이것은 총칭적 명사구의 외

연을 고유명사처럼 처리한 Carlson (1977)의 분석과 일치하는 것이다.

- (39) a. 내가 신뢰하는 철수/그 남자를 보내겠다.
 b. I will send *John/the man that I trust.
 c. I will send John/the man, whom I trust.

총칭적 명사구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은 특칭적 명사구를 선행사로 하는 명사구와는 달리 영어의 비제한적 관계절처럼 행동한다. 문법적인 방법으로 관계절이 제한적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의미적으로만 판단해야 하는데, 총칭적 해석이 가능하면 이 관계절은 제한적이라기 보다는 동격절(appositive)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40)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는 값이 비싸다.

(40)에서의 관계절은 총칭적으로 해석되어, 특칭 해석일 때와는 달리 존재 양화사의 범위 안에 변수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자들이 좋아하는 리차드 기어는 출연료가 비싸다’에서와 같이 고유명사와 같은 해석을 받게 된다. PTQ에서는 고유명사를 일반명사와 달리 명사구(term phrase 또는 noun phrase)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총칭명사구의 의미를 term phrase로 처리하는 것은 PTQ식 분석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할 필요가 없게 된다.

5. 요 약

한국어의 관계구문에서 중심명사가 명시적 양화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칭적 의미와 총칭적 의미 사이의 중의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명사의 유형을 검토해 보고 걸으로는 동일한 명사 표현일 지라도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을 부여받는다고 보았다. 원형명사구에는 명시적인 양화사가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특칭 또는 총칭의 의미해석이 가능한 것은 보통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격표지가 양화함수표현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명사구 자체의 유형이 구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이영현 (1984) 양화사의 의미표시와 해석, 서울: 한신문화사.
 Abney, S.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Bach, E. (1979) ‘Control in Montague Grammar,’ *Linguistic Inquiry* 10,

515-531.

- Bennett, M. (1974) 'Some Extension of a Montague Fragment of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CLA, Los Angeles, Calif.
- Carlson, G.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assachusetts, Amherst.
- Chierchia, G. and R. Turner (1988) 'Semantics and Property Theor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261-302.
- Cooper, R. (1983) *Quantification and Syntactic Theory*, Dordrecht: Reidel.
- de Hoop, H. (1989) 'Case Assignment and Generalized Quantifiers,' in Juli Carter and Rose-Marie Dechaine, eds., *Proceedings of NELS* 19.
- Dowty, 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Dowty, D. (1988) 'Type-Raising, Functional Composition and Non-Constituent Coordination,' in R. Oehrle, E. Bach and D. Wheeler, eds., *Categorial Grammars and Natural Language Structures*, Dordrecht: Reidel.
- Enç, M. (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nguistic Inquiry* 22, 1-25.
- Hoeksema, J. (1988) 'The Semantics of Non-Boolean "AND",' *Journal of Semantics* 6, 19-40.
- Hudson, W. (1989) 'Functional Categories and the Saturation of Noun Phrases,' in Juli Carter and Rose-Marie Dechaine, eds., *Proceedings of NELS* 19.
- Keenan, E. (1987) 'A Semantic Definition of "Indefinite NP",' in Eric Reuland and Alice G. B. ter Meulen, eds., *The Representation of (In)Definiteness*, MIT Press, Cambridge, Mass.
- Lee, Chungmin (1989) '(In)Definites, Case Markers, Classifiers and Quantifiers in Korean,' in Susumu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 Milsark, G. (1974) 'Existential Sentences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Montague, R. (1974) *Formal Philosophy*, Richmond Thomason, ed.,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Ojeda, A. (1991) 'Definite Descriptions and Definite Generic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4, 367-397.
- Partee, B. (1987) 'Noun Phrase Interpretation and Type-Shifting Principles,' in J. Groenendijk, D. de Jongh, M. Stokhof, eds., *Studies in Dis-*

course Represent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Generalized Quantifiers, Dordrecht: Foris.

Partee, B. and M. Rooth (1983) 'Generalized Conjunction and Type Ambiguity,' in R. Baeuerle, C. Schwarze, and A. von Stechow, eds., *Meaning, Use, and Interpretation of Language*, New York: de Gruyter.

Partee, B., A. ter Meulen, and R. Wall, (1990) *Mathematical Methods in Linguistics*, Dordrecht: Kluwer.

Steedman, M. (1985) 'Dependency and Coordination in the Grammar of Dutch and English,' *Language* 61, 523-568.

ABSTRACT

A Semantic Interpretation of Generic NPs in Relative Clauses

Sungbom Lee

This paper discusses a type of semantic ambiguity in relative clauses in Korean. Among the various forms of relative sentence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ose where the head noun (or antecedent noun) occurs without any explicit quantifying expressions and thus constitutes by itself a so-called bare NP. The focus is laid upon the ambiguity between generic meaning and existential meaning of those relative clauses. Specifically noted are the role of the case markers played in generalizing quantificational meanings of the generic and existential NPs; the semantic types of NPs and the corresponding difference in semantic interpretation of ambiguous relative clauses; and the use of type-lifting and a null determiner. A model theoretic analysis with a minimal modification of Montague's PTQ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a Cooper-style set-theoretic analysis of quantificational meanings of NP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t.
Hanyang University
396 Daehag-dong, Ansan
Kyonggi-do, 425-791
Korea